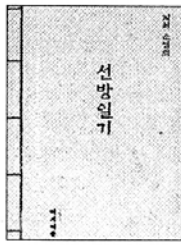


휴가, 배낭에 佛書 한권 쫌...

놀러가는 휴가때 배낭에 책을 짐도 많은데 책을 가져 가는 것은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다. 하지만 이 동종 기법게 읽을만한 책 한권이 짐속에서 빠진다면 왠지모를 허전함 또한 한번쯤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책이 바로 삶의 중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막상 무슨 책을 가지고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출판 관련 전문가 조연과 언론의 서평을 참고하여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결코 경박하지 않은 책 10권을 골랐다.

휴가 도반 베스트 10

선방의 일상 생생히 묘사



◎선방일기(지허스님 지음, 여시마문 펴냄):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선방일기>는 결제 불공을 마치고 응달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임,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결제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지허스님이 털어 놓는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다른 맛.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을깨기, 늦깨기)들의 서얼다툼, 원주스님 몰래 숯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등은 책을 읽는 술술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값 5천원.

화날때 마음 다스리기



◎화(틱낫한 지음, 명진출판 펴냄): 틱낫한 스님의 저서 '화(Anger)'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붉히게 되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방화범을 잡기보다 불을 먼저 꺼야 하는 것처럼, 화가 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보고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양갈음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스님은 화를 다스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값 8천9백원.

'왜 우리는 폭-쉬지 못할까'



◎휴식(월호스님 지음, 해들누리 펴냄): 하루 하루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막상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폭-쉬지를 못한다. 고작 한다는 짓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는 것이 전부이기 십상이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월호스님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휴식'을 가질

것을 권한다. <휴식>에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모든 스트레스에 0을 곱하자' 등 휴식에 관련된 60여편의 글들이 실려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心淸淨 國土淸淨)'는 <유마경>의 말씀에 빚대어 '내 마음이 쉬면 세상이 쉬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도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는 월호스님. 진정한 쉬는 선의 정신에서 찾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값 8천원.

초심 불자 필독서



◎왕초보 불교박사되다(지현·일지·윤창화 공저, 민족사 펴냄):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는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탄생한 책이다. 하지만 결코 초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불교교양 대학 학생들은 물론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포교사들까지, 불자라면 한번쯤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용어 가운데 막상 짚어보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주제들은 그동안 학자나 스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며 등한시 해왔던 것들이다.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를 시작으로 '절을 왜 절이라 합니까' '깨달으면 부처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등 경전과 교리 그리고 수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 상식 150가지를 간추려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해 놓았다. 값 6천8백원.

부처님의 삶 그대로 따르자



◎내가 본 부처(도법스님 지음, 호미 펴냄):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부처님의 인생 이야기를 풀이한 책이다. 스님은 대뜸 '부처님이 곧 불교'라고 말한다. 불교의 출발이 부처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제대로 알면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아니다. 연대기적 나열이나 평

면적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 현실에서 부처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본래 1998년 가을부터 2000년 가을까지 행자교육원에서 갖 출가한 행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값 7천원.

부처님 일생 소설형식 서술



◎부다(유홍중 지음, 해들누리 펴냄): 이 책에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초보자의 불교 읽기 쫌 되겠다' 카필라 성의 부왕에 이어 왕권을 계승해야 할 왕세자는 무슨 이유로 그 막강한 권력과 영광을 한싹뚱 버리고 참담한 고행 길로 들어선 것일까? 부처님이 품었던 위대한 야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부다는 니르바나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도대체 그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 어려운 한자 용어에 갇혔던 부처님의 생애가 편안하게 술술 읽힌다.

소설가 유홍중 씨는 다큐멘터리 소설 형식을 빌려 부처님의 생애를 추적한 이 책에서 "모든 경전은 부다의 설법에서 나왔으며, 모든 설법은 부다가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깨달음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값 1만5천원.

'달라이 라마' 마음 수행법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달라이 라마 지음, 공경회 옮김, 문이당 펴냄): 달라이 라마가 인도 델리에서 매년 열리는 투시타 법회에서 설법한 강연 원고이다. 대부분 지당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 국내 스님들의 생활 에세이를 많이 접한 불자들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 원리에 입각해 마음되는 방법을 달라이 라마 특유의 나직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어 종교와 삶에 대한 생각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를 가장 낮게 여기고 다른 이를 높이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마음 속의 탐욕이나 적에 대한 분노 역시 서로가 의존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평온과 비폭력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항상 유지하고 사는 것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값 8천원.

일업 스님의 구도의 길



◎청춘을 불사르고(일업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일업스님의 <청춘을 불사르고>의 옛 문체를 읽기 쉽게 다듬고 한자어에 대한 각주를 달아 30여년 만에 재출간된 책이다. 이 책은 화가 나혜석과 함께 개회기 신여성운동을 주도했으나 결혼에 두 번 실패한 뒤 32세의 나이에 돌연 출가한 스님의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춘원 이광수가 '일업'이라는 호를 지어줬을 정도로 뛰어난 문재를 지닌 작가였던 일업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으로 출가한 후 '글 또한 망상의 근원'이라는 스승 만공 스님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2년이 지난 뒤에 이 책을 썼다. 1960년 출간 당시 큰 인기를 끌어 젊은 여성 독자들의 구도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 값 1만1천원.

절과 사람 이야기 한쪽 풍경화



◎적멸보궁 가는길(이산하 지음, 이룸 펴냄): 시인 이산하 씨가 불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5대 적멸보궁과 3보 사찰, 3대 관음성지를 둘러 보고 쓴 명상 에세이집이다. 책은 이산하가 적막마니라는 진신사리가 있다는 적멸보궁과 3보 사찰인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3대 관음성자인 홍련암, 보문사, 보림암 등의 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작 시인은 문득 떠오른 흥분에 기대어 이리저리 발길을 옮긴다. 거대한 눈썹바위 아래 마애불이 새겨진 강화도 보문사, 머슴 부처와 누운 부처 등의 신비를 간직한 화순 운주사의 풍광과 절집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천진난만한 스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쪽의 풍경화처럼 소담스럽게 담겨져 있다. 값 1만2천원.

죽음을 넘어서는 법



◎소멸의 아름다운(필립시먼스 지음, 김석희 옮김, 나무심는사람 펴냄): '인간은 고집스런 동물이라서 삶을 새롭게 바라 보려면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내 경우 그 충격은 고작 서른다섯 살에 루게릭 병(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5년 안에 죽게 되리라는 소식이었다.' 책은 저자의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는 영문학교수로서 또 장래가 촉망되는 문인으로서 이제 막 생의 활기찬 걸음을 내딛으려던 순간, 갑자기 '죽어가는 기술' (Art of dying)을 배워야 하는 암담한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8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통계적으로 벌써 죽어야 할 처지이지만 오히려 '살아가는 기술(Art of living)'을 터득해 가고 있다. 이 책은 인생이란 우리가 소중한 것보다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오래 산 이들을 위한 책이다. 값 8천5백원.

불교 신행전반 가이드북

조계종 '짧은 글, 큰 깨달음' 10권 발행



사찰에 들어가 가장 먼저 참배를 올리는 대웅전은 왜 대웅전이라고 할까? 신타라 태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영웅, 즉 대웅(大雄)이라 부른다. 대웅전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진리를 설하는 전각이다. 사찰에 처음 가는 초심자들이나 일반인한테는 사찰예절을 비롯해 전각 하나에 붙여진 의미, 참선의 자세 등 궁금한 것들 투성이다. 이때는 누구라도 불잡고 차근차근 들여보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번엔 조계종 불교원에서 펴낸 포교 소책자 시리즈 <짧은 글, 큰 깨달음> (조계종 출판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총 10권이 이 책은 우선 제 1권 '가람을 찾아서'로 출발한다. 이 책에는 금강문과 천왕문, 대웅전, 무량수전 등 전각의 의미와 사찰에 갖는 신앙적 의미들이 이야기식으로 소개돼 사찰을 처음 찾는 이들이 손에 들고 가면 가이드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자 하는 초발심자들은 제 2권 '신행의 길잡이'를 보면 된다. 발심편과 입문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각 편마다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와 초발심자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수행생활을 쉽게 할 수 있게 구성했다.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세계관이 알고 싶다면 '부처님오신날'의 부제가 달린 제 3권을 읽어보자. 출가·열반절을 다룬 제 4권에서는 출가의 참된 의미와 공덕, 출가자의 삶을 비롯해 부처님 열반의 의미와 설법도 있다. 불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제 5권 '우리들의 마니포'와 제 6권 '우리들의 좋은 인연'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그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꾸며 놓았다. 현재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제 7권 '치유의 손길'을 권한다. 병의 치유를 위한 마음 자세, 통증 완화를 위한 호흡법 등이 소개되어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될 것 같다.

제 8권 '소중한 인연'에는 팔정도, 참선의 자세와 호흡법, 보살행매론 등이 실려 있으며, 제 9권 '주머니속의 평화'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욕심이 고단할 때 읽어주는 방편이 적혀 있다. 제 10권 '참 자유의 길'에서는 참 자유의 길은 무엇이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사는 세상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다. 각 권 1천원. 김주원 기자 jkim@buddhap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경강해	임근동	솔바람
3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김영사
5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정 정성욱	예문
6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7	시선	원경인	이레
8	마음은 없다	필립시먼스	나무심는사람
9	극락은 있다	관정	꽃다의 마음
10	차관잔의 풍경	김창배	솔과 과학

도서 안내: (02)737-0695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문문 중에서 -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중품·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축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데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1722-0292~3

부다의마음

명리학의骨格을

확실하게 세워준다

滴天髓衡義

적 천 수 형 의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원문완전수독 역학계의 해성 유성 선생이 적천수, 적천수 천미, 적천수 경의를 理氣로써 저술하여 그 심전을 살피고, 허실을 짚었으며, 오류를 찾았다. 또한 주를 달고, 임상실례를 첨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써 누구나 쉽게 명리학의 기초부터 실천의 배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B/D 3층 T 921-8434 F 929-3470

관음역서 시리즈

- 1 해서 명리진경 신국판/책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매판/책서 조영수 편저/정가 16,000원(대) 신국판/책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소)
- 3 재미있는 오명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명만 편저/정가 12,000원
-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봉 강봉서 지음/정가 30,000원
- 5 신비의 영부적 대사건 신국판/김명만 편저/정가 140,000원
-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매판/이선명, 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봉/송희선 지음/정가 25,000원
-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신국판/양정봉/박우환 지음/정가 25,000원
-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정우호 지음/정가 12,000원
- 10 관상 수성학 강의 신국판/정우호 지음/정가 15,000원
- 11 신도정비결 신국판/배영 지음/정가 8,000원
- 12 사주 입상학 신국판/양정봉/이성국 지음/정가 25,000원
- 13 전통 풍수지리 필경제 신국판/양정봉/신성철 지음/정가 30,000원
-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송호지 지음/정가 15,000원
-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봉/양정봉 지음/정가 30,000원
- 16 꿈풀이 실용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 17 명가흥기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양정봉 지음/정가 15,000원
- 19 구상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정봉/문경여 지음/정가 25,000원
- 20 육호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봉/송희선 지음/정가 30,000원
-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정봉/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